

勞 動 經 濟 論 集  
第39卷 第1號, 2016. 3. pp.57~79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조 성 호\*\*

본 연구는 「2014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은 아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임금이 높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다. 아내 시간배분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남편)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노동시간은 감소하며,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시간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에 남편의 육아 가사시간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배분의 상관관계에서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었으나,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아내가 일을 많이 하여 생긴 가사일의 부족분을 남편이 채우게 되지만, 집안일을 부부의 누군가가 한다면 다른 한 쪽은 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말에는 이러한 관계가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키워드: 시간배분, 생활시간조사, 맞벌이 부부

논문 접수일: 2016년 2월 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3월 17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23일

\*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한국노동경제학회 분과에서 본 논문 집필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이용관 박사님(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익명의 두 분 심사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남아 있는 논문의 오류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의 제6장에 수록된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jotting0207@gmail.com)

##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2005년의 1.08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1년에는 1.21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 평균(2012년: 1.78)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도 헝가리, 그리스와 더불어 최하위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출산율이 감소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로 압축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Becker(1991)는 각 가계(household)가 예산 제약 하에 그들의 효용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자녀의 수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즉,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비용은 물리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의 부담과 같은 것도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육아와 가사를 외주(outsourcing)로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거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여 가사를 분담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는 물리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잠재적인 비용과 물리적인 비용의 차이(기회비용)에 의하여 외주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적 제약으로 인하여 내주(insourcing)를 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계 구성원의 육아·가사 분담일 것이며, 부부 세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 일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은 미국 및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조성호, 2015), 남성의 육아 및 가사시간을 포함한 남성의 무급 노동시간(unpaid work time) 전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배우자의 취업 유무에 따른 남편의 시간배분(time allocation) 구조에 대한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남성의 시간배분에 대하여 분석하려 한다. 그러나 부부의 시간 구조는 배우자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여성)의 시간배분에 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

1)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II. 이론적 논의

시간배분 이론은 Becker(1965)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노동시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가시간(노동 시간 이외의 잔여시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Gronau(1977)는 여가 시간 중에서도 가계 내 생산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Kimmel and Connelly(2007)는 가계 내 생산시간을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 둘의 결정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가사 시간과는 다르게 육아시간은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이득(process benefit)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시간배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을 Stancanelli and Stratton(2010)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제시한다.

$$W_h = W(U_m, U_f) \quad (1)$$

$$U = U_s(X_{ms}, X_{hs}, l_s) \quad s = m(\text{male}), f(\text{female}) \quad (2)$$

$$X_{hs} = F(h_m, h_f) \quad (3)$$

subject to

$$w_s X_{ms} = Y + w_s t_w \quad (4)$$

$$T_s = t_{ws} + t_{hs} + t_{ls} \leq 24 \quad (5)$$

$$t_{hs} = t_{ccs} + t_{dws} \quad (5')$$

$X_m$ : 시장재,  $X_h$ : 가계내 생산 함수,  $h$ : 가계내 생산물,  
 $w$ : 임금율,  $t_w$ : 노동시간,  $t_h$ : 가계내 생산시간,  $t_l$ : 여가시간  
 $t_{cc}$ : 육아시간,  $t_{dw}$ : 가사시간,  $Y$ : 비근로소득

식 (1)의  $W_h$ 는 남편과 아내의 효용함수( $U_m$ ,  $U_f$ )로 구성된 가계 내의 복지함수(welfare function)이며, 식 (2)는 부부의 효용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가계 내의 생산함수를 통하여 생산된 생산물,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가계의 효용함수는 식 (4)의 소득제약과 식 (5)의 시간제약 하에서 최대화되는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즉, 가계는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가계 내의 노동시간(육아·가사·여가시간)을 투입하여, 소득제약과 시간제약 하에서 가계 내 생산함수를 통해 효용이 최대화되는 최적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복지함수는 총 효용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율(weight)과 가계 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양(또는 가치), 그리고 그 생산성을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용 최대화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도형(reduced form) 함수를 이용하여 구조적 수요함수(structural demand function)를 도출하였다.

$$mw_s = mw_s(w_m, w_f, Y, z) \quad (6)$$

$$cc_s = cc_s(w_m, w_f, Y, z) \quad (7)$$

$$dc_s = dc_s(w_m, w_f, Y, z) \quad (8)$$

식 (6), (7), (8)은 각각 노동(labor), 육아(child care), 가사(domestic chore) 시간에 대한 구조식을 나타내며,  $z$ 는 임금 이외에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나타낸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아내의 임금( $w_f$ ) 상승은 아내의 시간 가치(또는 가격)가 남편의 시간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만일 노동시간이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아내가 가계 생산에 시간( $t_h$ )을 더욱 많이 소비하여 가계 내 생산물( $h_f$ )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내의 임금상승은 가계 내에서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강화시켜 가계 내 생산물( $h_f$ )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sup>2)</sup> 즉, 교섭력의 강화가 가계 내 생산시간( $t_h$ )을 감소시키고 그것이 곧 가계 내 생산물( $h_f$ )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내의 임금 변화에 의한 영향은 실제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sup>3)</sup>

2) Chiappori(1992)의 집합적 모델(colletive model)에서 제시한 분배규칙( $\theta$ , sharing rule)을 교섭력으로 재정의하여 교섭모델(bargaining model)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Gupta & Stratton, 2008; Pollak, 2005; 조성호, 2015), 교섭력의 대리변수로서 부부의 교육수준 차이, 임금차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Pollak(2005)은 임금을 교섭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3) 만일 교섭력이 강화되어 남편에게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가계 내 생산물이 남편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으며, 남편의 생산성에 따라 가계 내 생산물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내의 임금 변화(또는 교섭력의 변화)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내의 가사노동이 남편에게 전가된다는 결론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 Ⅲ. 선행연구

우리나라 최초의 시간배분 연구는 1962년 장명옥의 「부업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가사 노동의 동선과 에너지의 소모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김외숙·이기춘, 1988),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가정 관리학·사회학·인구학에서 주로 행해져 왔다.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를 크게 나누면, 1999년 「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되기 전과(한경미, 1989; 이기영·이승미, 1994; 채옥희, 1997), 시작된 후로 나눌 수 있고(유소아·최윤지, 2002; 손문금, 2005; 은기수, 2009), 작게 나누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와 그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시간 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은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으나,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전국을 대표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상정기의 「주부의 가정관리에 관한 연구(2)」)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김외숙·이기춘, 1988),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취업주부에 관한 시간배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한경미, 1989; 1991).

그러나 가정 관리학·사회학·인구학에서 수행된 시간배분 분석은 노동·육아·가사 여가시간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사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대부분이며, 이것은 추정 결과에 편의(bias)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 사용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사용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간 사용을 이분하여 노동과 여가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변화하면 여가시간이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 즉, 이것은 시간 사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사이에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eity)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 사이의 시간배분 간에도 내생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남편이 하였을 때, 아내는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은 곧 남편이 설거지를 한 만큼의 시간이 아내의 시간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4)</sup> 이것은 그 반대로 성립하며, 부부의 시간배분이 서로

---

에 문두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성지미(2006)의 연구는 육아·가사시간을 무급 노동시간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

반면 윤자영(2010)은 Kimmel and Connelly(2007)의 연구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로서, 육아와 가사시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로 SU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내의 임금은 시장노동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시장노동 이외의 시간, 즉 가사, 육아, 여가시간에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윤자영(2010)은 생활시간조사 데이터가 아닌 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임금을 별도로 추정함으로써,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고유의 임금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수연(2008)은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은 남편 자신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배우자(아내)의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5)</sup> 조미라·윤수경(2014)은 남편의 자녀 양육시간은 교육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은기수(2009)에서는 교육수준에 의한 유의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IV. 데이터 및 분석 모델

### 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이며, 분석을 위하여 약간의 가공을 거쳤다.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종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및 자신의 시간배분은 내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및 배우자의 시간 사용이 자신의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을 제거한 후에 독립변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노동시간이 자신의 가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노동시간과의 공분산이 0이 아니며, 자신의 가사시간과의 공분산이 0인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도입하여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추정한 후, 그 노동시간의 예측치(predict value)를 가사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에 도입해야만 한다. 배우자의 시간배분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후에 독립변수로 도입해야 한다.

기 때문에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의 시간 일지로 나누어 각각 변수를 가공한 후에 횡적 통합을 행하였다(부부 데이터 구축).<sup>6)</sup> 그리고 가구 데이터에서 자녀의 정보를 추출하여,<sup>7)</sup> 부부 데이터와 횡적 통합을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부부 모두가 19~49세이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유배우 부부로 한정하였다.<sup>8)</sup> 이러한 조건으로 분석 대상을 추출한 결과, 1,601쌍 부부의 시간일지 3,202개가 추출되었다.<sup>9)</sup> 그리고 시간 사용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 분석한다.

## 2. 분석 모델

본 추정에서 고려하는 시간배분은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시간 사용 간에는 내생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에 의한 동시추정(simultaneous estimation)을 한다. 기본적 모델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_{ws}^* = \alpha_{0s} + \alpha_{1s}w_m + \alpha_{2s}w_f + \alpha_{3s}z + \epsilon_{ws} \quad (9)$$

$$t_{ccs}^* = \beta_{0s} + \beta_{1s}w_m + \beta_{2s}w_f + \beta_{3s}z + \epsilon_{ccs} \quad (10)$$

$$t_{dws}^* = \gamma_{0s} + \gamma_{1s}w_m + \gamma_{2s}w_f + \gamma_{3s}z + \epsilon_{dws} \quad (11)$$

$$t_w = \max(0, t_{ws}^*)$$

$$t_{ccs} = \max(0, t_{ccs}^*)$$

$$t_{dwx} = \max(0, t_{dws}^*)$$

6) 시간배분은 부부가 같은 날에 사용한 시간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요일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7) 시간 일지에 응답하지 않은 자녀들의 정보도 추출하였다.

8) 일을 하고 있는 유배우 부부로 대상을 한정할 이유는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분석하려는 요인이 임금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Kimmel and Connelly(2007)와 윤지영(2010)에서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임금을 예측(predict)하여 대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시간배분 관계에 대하여 동시적 내생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예측하여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분석 결과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상기 두 선행연구는 데이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차선택으로 타 데이터에서 임금을 예측하여 도입한 것으로, 그들의 임금 정보는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이다. 가능하다면 데이터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실제로 관측된 임금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임금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별로 2일의 시간 일지를 기입하기 때문에 6,404개의 시간 일지가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 (9), (10), (11)은 각각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에 대한 추정식을 나타내며, 아래 첨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시간 방정식 중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사시간은 0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obit 모델로 추정한다. 또한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부부의 주말 노동시간도 Tobit 모델로 추정한다. 그리고 동시적 내생성을 고려하여 세 개의 시간 방정식은 SUR(Seemingly Related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는데, 각 식의 잔차 행렬(residual matrix)은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pmatrix} \epsilon_{wm} \\ \epsilon_{wf} \\ \dots \\ \epsilon_{dwm} \\ \epsilon_{dwf} \end{pmatrix} = \begin{pmatrix} 0 \\ 0 \\ \dots \\ 0 \\ 0 \end{pmatrix}, \begin{pmatrix} \sigma_{wm}^2 & \sigma_{wm, wf} & \dots & \dots & \sigma_{wm, dmf} \\ \sigma_{wm, wf} & \sigma_{wf}^2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sigma_{wm, dmf} & \dots & \dots & \dots & \sigma_{dwf}^2 \end{pmatrix} \quad (12)$$

잔차는 관찰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를 의미한다. 즉, 관찰되지 않은 영향을 이 잔차 간의 관계 분석에 의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관찰되지 않은 요인 이외에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도입하지 못한 요인(omitted variables)에 대한 영향도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시간배분 변수는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잔차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잔차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 V. 변수 설명

### 1. 시간 사용 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시간 분류를 따라 <표 1>과 같이 시간 사용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먼저 노동시간은 일에 대한 시간으로,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을 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육아시간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로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육아시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맡긴 경우의 돌봄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 시간 사용 변수 정의

시간변수	활동 분류	
	대분류	중분류
노동시간	2.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육아시간	5.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51.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52.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가사시간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42.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45. 차량관리 46. 애완 동·식물 돌보기 49. 기타 가정관리

가사시간은 가정관리 시간으로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기타 가정관리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가사시간에서는 통계청 분류와 약간 다른 정의를 하였다. 그 이유는 쇼핑 시간은 엄밀하게 가사시간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Gershuny, 2000; 김수정·김은지, 2007), 쇼핑 시간 등은 제외하고 가사시간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노동·육아·가사시간은 주 행동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육아 및 가사시간의 경우에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행동의 경우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2〉는 요일에 따른 부부의 시간배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남편의 평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453.5분, 육아시간은 18.1분, 가사시간은 14.1분이다. 그리고 아내의 평일 노동시간은 355.2분, 육아시간은 62.5분, 가사시간은 130.3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요일에 따른 부부의 시간배분 (단위: 분)

	남편			아내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노동시간	453.5	231.1	123.1	355.2	125.9	63.5
육아시간	18.1	28.8	34.4	62.5	62.9	60.9
가사시간	14.1	30.4	41.2	130.3	171.9	187.7
(N)	(1,791)	(660)	(751)	(1,791)	(660)	(751)

노동시간은 아내가 남편의 0.8배 정도이지만, 육아시간은 아내가 남편의 약 3.5배, 가사시간은 약 9.2배 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남편의 토요일 육아·가사시간은 평일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요일의 육아·가사시간은 평일보다 2~3배 정도 증가하나, 아내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내의 육아시간은 주말로 갈수록 약간 감소하나, 가사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들의 가사부담은 주말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반면, 육아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설명변수

시간배분 결정요인의 추정에서는 <표 3>과 같은 설명변수를 사용한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도입하는데 이들 속성에는 각각 임금률, 연령, 학력, 자영업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임금률은 월 소득에서 근무시간으로 나눈 수치이며,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월 소득 변수가 카테고리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중앙값을 대입하여, 주당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임금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과 대졸을 나누어 대졸 이상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영업 여부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즉 고용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추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속성을 모두 도입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경우, 임금률과 학력만을 도입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부부의 경우 대부분 연령차가 일정하여 선행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과 자영업의 경우 부부가 같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부의 속성 이외에 자녀의 수, 부모 및 기타 가구원의 존재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그 중 자녀는 어릴 때에 돌봄을 제공 받게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노동집약성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를 도입하며, 취학연령을 고려하여 미취학(0~6세 미만), 취학(6~18세 미만), 성인(18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가사를 인소싱할 경

10) 임금률 산출식은 월 소득/(주당 근무시간\*4.2)이다.

〈표 3〉 시간배분 결정요인 추정의 기술통계량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의 속성				
임금률	1.535	0.745	1.577	0.820
연령	41.872	5.247	41.776	5.120
학력(대졸이상=1)	0.663	0.473	0.637	0.481
자영업자(=1)	0.280	0.449	0.258	0.438
아내의 속성				
임금률	1.115	1.291	1.153	1.307
연령	39.467	5.098	39.355	5.066
학력(대졸이상=1)	0.607	0.489	0.591	0.492
자영업자(=1)	0.249	0.433	0.206	0.405
자녀수				
미취학(0-5세미만)	0.307	0.487	0.288	0.464
취학(6-18세미만)	1.168	0.863	1.167	0.865
성인(18세이상)	0.169	0.432	0.163	0.439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0.095	0.335	0.113	0.369
Observations	1,791		1,163	

우에는 가계 내 구성원이 이를 분담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모 및 기타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의 영향을 살펴본다.

## VI. 회귀분석 결과

### 1. 부부의 주중 시간배분

〈표 4〉는 식 (9)~(11)을 SUR 모델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말에는 시장 노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시간 사용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남편의 노동시간은 남편 자신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아내 임금은 아내 자신의 노동시간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임금에 의한 대체효과 보다 소득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 모두의 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영업자가 고용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육아 및 가사시간 등)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 여부 영향의 크기는 아내가 남편의 두 배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가 고용 형태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의 노동시간은 배우자(아내)의 임금에 의한 유의한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아내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내 또한 남편의 임금률에 의한 영향이 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크기는 남편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아내의 노동시간은 남편의 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내의 시장노동이 보조적인 소득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 및 기타 가구원의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육아시간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육아시간 모두 자신들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에 의한 유의한 영향은 관찰되고 있으며, 이 연령에 의한 영향은 부부 모두 비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육아시간은 학력에 의한 유의한 영향은 없으며, 자영업 여부는 아내의 육아시간에만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것은 육아시간에 있어서는 고용 노동자보다 자영업을 하는 유배우 여성이 비교적 육아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아내의 노동시간 추정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 노동자보다 적은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유배우 여성의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배우자 임금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내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육아시간은 10%의 유의수준이긴 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내의 육아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부 모두 대졸 이상일 경우에 육아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육아시간은 아내의 임금과 학력이 높을 경우에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수에 의한 영향은 부부 모두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시간은 증가하며, 취학 및 성인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 및 기타 가구원이 존재하면 남편의 육아시간만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시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남편의 가사시간은 남편 자신의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반면, 아내의 가사시간은 아내 자신의 임금이 증가할수

〈표 4〉 부부의 시간배분 추정결과(SUR estimation): 주중

	남편		아내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b>노동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8.252	(6.327)	-8.707***	(3.050)
연령	-8.179	(8.892)	-0.311	(9.780)
연령 제곱	0.079	(0.110)	0.042	(0.127)
학력(대졸 이상=1)	5.681	(8.740)	6.452	(9.597)
자영업(=1)	-35.262***	(8.718)	-69.970***	(10.260)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8.075***	(2.665)	-20.494***	(7.028)
학력(대졸 이상=1)	-10.967	(8.613)	-15.272	(9.783)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8.477	(9.629)	-6.822	(10.720)
취학(6~18세 미만)	-9.044	(5.794)	-9.154	(6.485)
성인(18세 이상)	4.206	(10.261)	19.346*	(11.675)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0.875	(10.408)	15.237	(11.592)
상수항	680.227	(177.424)	331.633*	(186.049)
<b>육아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0.058	(4.241)	1.698	(1.175)
연령	14.650***	(5.603)	6.544*	(3.777)
연령 제곱	-0.228***	(0.071)	-0.151***	(0.049)
학력(대졸 이상=1)	1.929	(6.092)	6.584*	(3.704)
자영업(=1)	-0.093	(5.869)	11.562***	(3.950)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3.281*	(1.912)	0.018	(2.713)
학력(대졸 이상=1)	19.101***	(5.978)	10.281***	(3.779)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38.478***	(6.200)	23.615***	(4.135)
취학(6~18세 미만)	-9.377**	(3.954)	-9.948***	(2.505)
성인(18세 이상)	-39.260***	(9.138)	-21.079***	(4.513)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19.565***	(7.440)	-7.164	(4.482)
상수항	-257.583**	(109.382)	39.748	(71.835)
<b>가사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0.178	(3.428)	-2.687*	(1.437)
연령	-2.334	(4.807)	-8.874*	(4.617)
연령 제곱	0.028	(0.060)	0.126**	(0.060)
학력(대졸 이상=1)	-6.534	(4.770)	-9.069**	(4.528)
자영업(=1)	7.686*	(4.637)	20.753***	(4.829)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4.967***	(1.517)	6.428*	(3.316)
학력(대졸 이상=1)	14.061***	(4.743)	1.270	(4.620)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11.090**	(5.195)	-0.413	(5.054)
취학(6~18세 미만)	10.057***	(3.116)	15.726***	(3.062)
성인(18세 이상)	-1.112	(5.622)	-2.385	(5.517)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12.931**	(6.052)	-18.645***	(5.479)
상수항	0.843	(95.664)	260.541***	(87.813)
Observations	1,791			

주: \* p<0.1, \*\* p<0.05, \*\*\* p<0.01.

〈표 5〉 부부의 시간배분 추정 잔차의 상관관계: 주중

		남편			아내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
남편	노동시간	1.000					
	육아시간	-0.173***	1.000				
	가사시간	-0.312***	0.296***	1.000			
아내	노동시간	0.173***	0.0309	0.063***	1.000		
	육아시간	-0.011	0.039	-0.007	-0.379***	1.000	
	가사시간	-0.039	-0.014	-0.055**	-0.551***	0.212***	1.000

주: \* p<0.1, \*\* p<0.05, \*\*\* p<0.01.

록 10%의 유의수준에서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내의 가사시간은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며, 자영업에 종사하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또한 육아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고용 노동자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은 남편 자신의 가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임금 효과를 보면, 아내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가사시간도 10%의 유의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내의 가사시간은 아내 자신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였을 때, 아내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가계 내에서 아내의 교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Pollak, 2005; 조성호, 2015), 아내의 가사시간이 감소하고, 그 부족분을 배우자(남편)의 가사시간 증가로 대체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수에 의한 영향은 대체로 취학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및 기타 가구원이 있으면 부부 모두의 가사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조미라·윤수경(2014)과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은기수(2009)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분석대상과 데이터의 분석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들은 모두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한 결과이지만 조미라·윤수경(2014)은 20~60세 미만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1999년, 2004년, 2009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있고, 은기수(2009)는 20~55세 이하의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2004년의 데

이터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는 자신의 학력보다는 배우자의 학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학력이 높을 수록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식 (9)~(11)을 추정하고 난 잔차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하면, 남편의 노동시간과 육아 및 가사시간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은 육아와 가사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시간은 서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육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으면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부부의 시간배분 상관관계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노동시간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부부의 시장노동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찰되지 않은 요인이 유사할 가능성 assortative mating)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Bloemen et al., 2010). 그리고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표 4>의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집안 일은 남편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시간은 서로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아내의 가사시간이 길어지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 자신의 시간배분의 관계는 남편과 대부분 유사하여 노동시간과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은 음(-)의 관계,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시간배분에 있어서 자신의 노동시간과 육아·가사시간은 상충적 관계(trade-off relationship)에 있고,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중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 및 아내는 육아 및 가사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부부의 주말 시간배분

부부의 주말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고 있으며, 주중과 다른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 먼저 남편의 노동시간을 보면, 주중 결과에서는 남편의 임금이 남편 자신의 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말에는 임금이 증가할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것은 남편의 주말 노동시간은 임금의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욱 크다



〈표 6〉 부부의 시간배분 추정결과(SUR estimation): 주말

	남편		아내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b>노동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173.945***	(25.333)	-31.806***	(11.194)
연령	-45.281	(36.291)	-20.264	(34.550)
연령 제곱	0.503	(0.449)	0.380	(0.446)
학력(대졸 이상=1)	-84.604***	(31.272)	-74.731**	(32.824)
자영업(=1)	65.399**	(32.419)	62.659*	(37.054)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41.966***	(10.444)	-115.544***	(25.704)
학력(대졸이상=1)	16.769	(31.848)	-33.217	(32.734)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21.094	(38.240)	28.277	(39.332)
취학(6~18세 미만)	18.689	(21.419)	16.817	(22.167)
성인(18세 이상)	42.161	(36.628)	28.152	(37.884)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0.942	(35.606)	40.586	(36.219)
상수항	1040.297	(724.847)	69.120	(662.371)
<b>육아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10.491	(8.098)	2.401	(1.940)
연령	34.929***	(10.606)	0.516	(5.651)
연령 제곱	-0.517***	(0.134)	-0.077	(0.073)
학력(대졸 이상=1)	3.672	(9.621)	17.356***	(5.384)
자영업(=1)	-3.712	(9.932)	7.503	(6.193)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1.308	(3.417)	0.604	(4.340)
학력(대졸 이상=1)	26.606***	(9.602)	11.246**	(5.398)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41.021***	(10.582)	34.292***	(6.377)
취학(6~18세 미만)	-16.198**	(6.291)	-15.785***	(3.648)
성인(18세 이상)	-70.194***	(16.987)	-18.374***	(6.477)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7.582	(10.118)	6.796	(6.012)
상수항	-591.969***	(207.911)	155.703	(107.950)
<b>가사시간</b>				
자신의 속성				
임금률	15.091**	(6.209)	-2.609	(2.747)
연령	0.119	(8.816)	-6.123	(8.004)
연령 제곱	-0.001	(0.109)	0.104	(0.104)
학력(대졸이상=1)	8.741	(7.598)	4.408	(7.625)
자영업(=1)	-8.982	(7.808)	-14.989*	(8.771)
배우자의 속성				
임금률	3.050	(2.671)	8.972	(6.147)
학력(대졸 이상=1)	22.375***	(7.622)	11.631	(7.645)
자녀수				
미취학(0~5세 미만)	-1.257	(8.989)	-4.696	(9.032)
취학(6~18세 미만)	5.789	(5.009)	15.808	(5.167)
성인(18세 이상)	-12.084	(9.336)	19.371***	(9.173)
부모 및 기타 가구원(있음=1)	-10.755	(8.843)	-6.361**	(8.516)
상수항	-29.289	(176.014)	227.808	(152.891)
Observations	1,163			

주: \* p<0.1, \*\* p<0.05, \*\*\* p<0.01.

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부부가 주말에 일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시간에서는 주중에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육아시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주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편의 육아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부모 및 기타 가구원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시간은 가장 변화가 큰 시간으로 먼저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남편 자신의 가사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중에 아내의 임금이 아내 자신의 가사시간에 미치고 있던 유의한 영향이 주말에는 사라졌다. 그 외에 주중에는 유의했던 부부의 연령, 아내의 학력, 자영업, 배우자의 임금, 자녀수, 부모 및 기타 가구원 변수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시간배분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임금이 높은 남편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생긴 여유시간을 가사시간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편이 가사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잔차의 상관관계를 보면(표 7), 남편 개인의 시간배분 간 관계는 노동시간과 육아·가사시간이 상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의 시간배분 관계를 보면, 주중에 보완관계였던 아내의 노동시간과 가사시간이 대체관계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주말에는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어져도 남편의 가사 조력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주중에는 대체관계였던 부부의 가사시간이 보완관계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주중에 하지 못했던 가사 일을 부부가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대청소를 주말에 부부가 같이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7〉 부부의 시간배분 추정 잔차의 상관관계: 주말

		남편			아내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	노동시간	육아시간	가사시간
남편	노동시간	1.000					
	육아시간	-0.157***	1.000				
	가사시간	-0.286***	0.205***	1.000			
아내	노동시간	0.238***	-0.172***	-0.064**	1.000		
	육아시간	-0.003	-0.552***	-0.074**	0.259***	1.000	
	가사시간	-0.028	0.019	0.152***	-0.3173*	0.000	1.000

주: \* p<0.1, \*\* p<0.05, \*\*\* p<0.01.

그리고 주중에 유의하지 않았던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육아시간이 대체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사시간의 관계와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아내가 주말에 일을 많이 할수록 남편의 육아 및 가사 조력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내의 육아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도 유의한 대체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의 육아시간이 대체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로 갈수록 남편의 육아시간은 증가하고 아내의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내 개인의 시간관계를 보면, 주중의 결과와 다르게 노동시간과 육아시간이 보완관계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많은 아내가 육아시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부간의 시간배분 관계에서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어져도 남편의 육아 및 가사 조력이 적어진다고 하였는데, 주말에는 이 부족분을 아내 자신이 보완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V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4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의 시간배분, 즉 노동, 육아, 가사시간의 결정요인을 동시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은 아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편의 임금은 남편 자신의 시간배분(노동-육아-가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존재는 남편의 시간배분, 특히 육아 및 가사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육아와 가사시간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존재와 더불어 육아 및 가사시간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은 배우자(아내)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이다. 즉, 아내의 임금이 높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내 시간배분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남편)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자신의 노동시간은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시간은 부부의 임금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개인의 시간배분 상관관계는 노동시간과 육아가사시간이 상충적 관계에 있고, 육아시간과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으며, 시장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찰되지 않은 요인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으나, 가사시간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아내의 부재로 인하여 부족한 집안일은 남편이 하는 경향이 있으나, 집안일을 부부의 누군가가 한다면 다른 한 쪽은 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아내의 시간배분은 남편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시간배분이 남편과의 경제적 의존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시간은 부부의 임금 모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육아는 전통적으로 형성된 젠더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젠더 수행적(doing gender) 의식이 육아시간 결정 메커니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또한, 아내의 임금상승은 아내 자신의 가사시간 감소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으며, 이것은 곧 아내의 임금상승이 아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시간적 가치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가사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가사시간 감소가 가계 내 생산물( $h_f$ )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내의 임금상승은 결국 가계 내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가계 내 생산물( $h_f$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부부의 임금이 육아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sup>11)</sup>

주말의 시간배분은 주중의 시간배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부부가 대체로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시간배분 관계에서는 아내가 주말에 일을 많이 할수록 남편의 육아 및 가사 조력이 감소하였으며, 이 부족분은 아내가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에는 일을 하는 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서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시장에서 구매하는 보육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부간의 시간배

11)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는 보육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는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윤자영(2010)의 결과를 보면 보육비가 증가할수록 시장노동은 감소하고, 가사 및 돌봄노동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에 관하여 동시추정을 한 것과 부부간의 시간배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수정·김은지.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 (2) (2007.4): 147-174.
- 김외숙, 이기춘.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 (3) (1988.9): 171-187.
- 성지미.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 (4) (2006.12): 1-29.
- 손문금.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005.10): 239-287.
- 유소이, 최윤지.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 (3) (2002.12): 53-68.
- 윤자영. 「모의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 (2) (2010.8): 27-52.
- 은기수.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 (3) (2009.12): 145-171.
- 이기영, 이승미.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정주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1994.8): 11-26.
- 조미라, 윤수경.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44 (2014.6): 5-30.
- 조성호. 「부부의 육아 및 가사 분담의 국제비교연구」. 『여성경제연구』 12 (1) (2015.6): 163-187.
- 채옥희.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 (1) (1997.3): 13-26.
- 한경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2) (1989.12): 1-13.
- \_\_\_\_\_.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2) (1991.12):

171-190.

허수연.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 (3) (2008.9): 177-210.

Addabbo, Tindara, Antonella Caiumi, and Anna Maccagnan. “Allocation of Time within Italian Couples: Exploring the Role of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Effects on Households Wellbeing.” CAPPaper n. 85, Febbraio, 2011.

Becker, Gary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299) (September 1965): 493-517.

\_\_\_\_\_.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Bloemen, Hans G. and Elena G. F. Stancanelli. “How Do Spouses Allocate Time: the Effects of Wages and Income.” THEMA working papers 2008-40, 2009.

Bloemen, Hans G., Silvia Pasqua, and Elena G. F. Stancanelli.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Time Allocation of Italian Couples: Are They Responsive?”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8 (September 2010): 345-369.

Chiappori, Pierre-André (1992). “Collective Labor Supply and Welf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3): 437-467.

Gershuny, J.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Gronau, R.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6) (December 1977): 1099-1123.

Kimmel, Jean and Rachel Connelly.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 (3) (Summer 2007): 643-681.

Gupta, Nabanita D. and Leslie S. Stratton. “Institutions, Social Norms, and Bargaining Power: An Analysis of Individual Leisure Time in Couple Households.” IZA DP No.3773, October, 2008.

Pollak, Robert A. “Bargaining Power in Marriage: Earnings, Wage Rates and Household Production.” NBER Working Paper No.11239, March 2005.

Stancanelli, Elena G. F. and Leslie S. Stratton. “Her Time, His Time, or the Maid’s Time: An Analysis of the Demand for Domestic Work.” IZA DP No.5253, October 2010.

---

abstract

---

## Determinant Factors of Time Allocation within Married Couple

Sungho Cho

This study analyses determinant factors of time allocation within married couple using 2014 Time-use survey. Findings show that husbands spend less time on child care and housework than wives do. When wives have high income and young kids, husbands' time spending on child care and housework increases. Wives' time allocation is associated with husbands' income- wives' working time is negatively associated, but wives' housework tim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usbands' income. However, both wives' and husbands' income is not related to child care time. When wives' income increases, while, husbands'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 care increases. There are complementary relations within time allocation, but substitute relationships between wives' and husbands' housework time. In other words, if a wife works long hours, husband spends more time on housework, but if a wife or a husband spends on housework, her husband or his wife does not spend on it. However, findings of married couple time allocation for weekend shows different patterns from weekday time use.

Keywords: time allocation, time-use survey, dual income couples